

# 어린이 성경의 번역과 편집의 방향

손삼권\* 종합정리

## 1. 머리말

이 글은 대한성서공회에서 “어린이 성경 제작”을 위한 연구 작업을 종합하는 것이다. 앞에서 탐구한 4인의 연구를 근거로 어떤 방향으로 한국의 어린이 성경을 제작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가름하고자 한다.

“어린이 성경 번역에 있어서 발췌 본문에 대한 연구”<sup>1)</sup>는 성경의 어떤 내용을 어린이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어린이 성경의 발췌 내용을 어떻게 제정할 것인지를 밝히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광범위한 연구 범위로 인하여 전 내용을 다루지 못하였고 창세기를 중심으로 발췌 본문을 개발하였다. 특히 ICB, GNB, CDB의 문학적 비교 연구를 시도하였는데, 산문과 운문의 처리 내용, 각 성경들의 구성 등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의 발췌 본문을 예시로 제시하였다.

어린이 성경 번역에서 중요한 것은 어린이의 종교심리적인 이해가 중요하다. 따라서 두 번째 연구자인 강희천은 “아동기의 종교심리: 아동을 위한 성서 편집을 중심으로”<sup>2)</sup>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는 여러 종교심리학자들의 종교적 사고를 요약하였고, 어린이들이 종교적 언어와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종교심리학적으로 밝히려 하였다. 특히 성경 번역에서 중요한 과제인 ‘비유, 은유, 신화’에 관한 종교심리학적인 입장을 소개하였고, 이에 따른 성경 번역의 접근을 시도하였다.

세 번째 연구는 김희자의 “장기적인 학습을 위한 어린이 성경 번역의 선택성과 배제성”<sup>3)</sup>이다. 여기서 어린이 성경 번역을 위한 교회 현장의 조사와 번

---

\* 전주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현 기독교사상 주간.

1) 임동원, “어린이 성경 번역에 있어서 발췌 본문에 대한 연구,” 『성경원문연구』 6 (2000), 7-27.

2) 강희천, “아동기의 종교 심리와 성서 이해,” 『성경원문연구』 6 (2000), 28-52.

3) 김희자, “장기적인 학습을 위한 어린이 성경 번역의 선택성과 배제성,” 『성경원문연구』 6 (2000), 53-88.

역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어린이들의 성경에 대한 태도 조사, 해외의 기존 어린이 성경(13권)의 분석, 그리고 성경 번역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마지막 연구는 본인의 “성경 읽기의 차원에서 어린이 성경 번역의 방향”<sup>4)</sup>이다. 이 연구는 성경의 본질은 ‘만인이 읽을 성경’이라는 전제아래, 어린이들이 성경의 가독성을 위한 교육적 근거와 제한, 그리고 어린이 성경 읽기의 차원에서 번역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위 연구는 각기 다른 각도에서 어린이 성경 번역의 방향을 추구하였다. 즉 구약문학, 종교심리학, 현장 분석, 그리고 성경의 가독성의 차원이었다. 이 연구 작업 후에 대한성서공회에서 1999년 12월 11일에 연구 내용을 발표하면서 가장 중요한 논제로 떠오르는 것이 2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어린이들에게 “성경의 전 내용을 다 제공하느냐, 아니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만 발췌하느냐”라는 것이다. 즉 이 논의는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없거나 난해한 내용을 다 제시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오늘날 시청각 시대의 어린이들에게 문자로 된 성경을 제시해야만 하는가”이다. 특히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문화와 어린이들의 삶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어린이 성경보다는 멀티미디어를 겸비한 ‘시청각적 성경’을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토의와 연구를 바탕으로 결론을 말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 성경을 개발하는 데 ‘발췌 성경’과 ‘성경전서’를 다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발췌 성경은 어린이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필요하고, ‘성경전서’는 어린이들이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온전한 성경을 읽고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멀티미디어 시대이지만 문자로 된 어린이 성경을 개발해야 하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문자로 된 어린이 성경이 개발되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어린이 성경이 개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래의 보고는 이 두 가지 결론적인 입장에 의하여 정리한 내용임을 밝혀둔다.

## 2. 전체 성경과 발췌 성경 문제

### 2.1. 어린이의 성경 번역의 문제점

4) 손삼권, “성경 읽기의 차원에서 어린이 성경 번역,” 『성경원문연구』 6 (2000), 89-113.

어린이들은 성인들이 사용하는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데에 여러 가지 난점을 안고 있다. 어린이들이 성경 읽기와 이해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sup>5)</sup> 성경 읽기와 이해의 어려움은 첫째로 “성경언어의 난해성”이라 할 수 있다. 즉 ‘2천여 년의 교회 전승과 신학적 성찰’, ‘독자의 삶’, ‘성서 기자와 독자의 세계의 격차’라 할 수 있다. 이 난점은 어린이들에게도 적용되는 문제이다. 특히 어린이들은 비유, 상징적 표현, 추상적 개념, 한자어, 종교적 언어, 은유적 개념, 문화적 개념 등을 이해하기 힘들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성경과 만나도록 돕기 위해서는 성경의 언어를 어린이 차원에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의 언어를 이해하고 습득하는 것은 기독교 교육에서 개념을 획득하고, 기독교적 삶을 살도록 돕는 일이기 때문이다.<sup>6)</sup> 특히 어린이들은 책에 대한 경험이 많을수록 그들의 이야기가 있으며, 이야기는 특별한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sup>7)</sup>

둘째로, 어린이들은 성경 읽기와 이해의 난점은 “종교심리적인 차원”에서 찾을 수 있다. 강희천의 보고에 의하면, H. D. 라이트와 W. A. 코프(1964)와 R. 비아넬로(1970)는 어린이의 ‘하나님의 개념’이 연령에 따라서 이해도가 다르다는 것을 조사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개념’(K. 타미넨, 1974)과 M. A. 존슨(1973, 1974)의 ‘종교적 성향’ 연구에서도 아동의 종교적 성향이 연령과 교회 출석, 신앙 교육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성경에 나오는 ‘비유, 은유, 신화’에 대한 이해는 나이 차, 남녀 차가 현저하여 성경 읽기와 이해의 난점으로 등장한다.<sup>8)</sup> 특히 어린이들은 ‘사회화된’(socialized) 언어보다는 ‘자기 중심적’(ego-centric) 언어 세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언어 이해에 제한이 많다. 이것은 그들이 논의나 추상적 사고, 인과적 논리를 추론하기보다는 사고의 사실적인 결과만을 다루고 있다.<sup>9)</sup> 이것을 달리 말하면, ‘비방향적 또는 자폐적 사고’(undirected or autistic thought)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자기 세계 안에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성경을 제대로

5) *Ibid.*, 99-105.

6) Jerome W. Berryman, "Faith Development and the Language of Faith," *Handbook of Children's Religious Education*(Birmingham, AL: Religious Education Press, 1992), 22. 종교 교육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세계에 살기 위한 훈련이며, 기독교 전통 안에서 언어를 통하여 비유, 종교적 이야기들, 그리고 예배의식 행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7) F. Rossman, "Preschoolers' Knowledge of the Symbolic Function of Written Language in Storybook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oston University, 1980).

8) 강희천, "아동기의 종교 심리와 성서 이해," 29ff.

9) Jean Piaget, *The Language and Thought of the Child* 「아동의 언어와 사고」 송명자, 이순형 역(중앙적성출판사, 1988), 104-112.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셋째로 어린이들의 성경 읽기와 이해의 난점은 어린이들이 “삶과 경험의 제한성”이다. 독자의 삶의 상황에 따라서 성경 해석과 이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어린이들의 성별, 인종, 국적, 지위, 수준, 나이, 가정환경, 관심 등에 따라서 달라진다.<sup>10)</sup> 이것은 강희천의 보고에서도 나타나 있다. 어린이들의 ‘비유 이해’, ‘은유 이해’, ‘신화 이해’ 등에서 그들의 연령, 남녀 차, 문화 등으로 인하여 성경의 개념을 전혀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 성경 번역을 위해서 그들의 미성숙한 경험과 다양한 경험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sup>11)</sup>

여기서 어린이 성경을 번역하는 데에 따르는 어려움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제작하느냐, 아니면 기존 성경을 제공하느냐가 문제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동안 대체로 어린이 성경을 세 가지 형태의 방향을 추구하였다. 그것은 ‘이야기 성경’, ‘발췌 성경’, 그리고 ‘성경전서’이다.

## 2.2. 이야기 성경

어린이들이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성경 이야기와 인물을 중심으로 ‘어린이 이야기 성경’(Story Bible for Children)을 편찬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어린이들이 그 동안 이야기 성경은 많은 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성경들이 발간되었다.

### <이야기와 그림 성경>

Doris Rkker, Jean Syswerder, 「바울 그림 성경」 바울, 1995.

Elia Taniguci, 「그림과 함께 하는 이야기 성경」 김명수 역, 성민당, 1999.

Gibert Beers & Ronald A. *The Big Bok of All-time Favorite Bible Stories; Childres's Bible: Words of Wisdom*, Hong Kong Bible Society, 1993

Marian Schooland, *Marian's Big Book of Bible Stories*, Eerdmans Pub. co., 1975

Rolf E. Aaseng, *Augsburg Story Bible*, Augsburg, 1992

Shalina Hastings, 「성경전과」 홍성사, 1998.

*Stories of Bible*, American Bible Society, 1987

10) David Robert Ord & Robert B. Coote, *Is the Bible True?: Understanding the Bible Today*, 52.

11) 강희천, “아동기의 종교 심리와 성서 이해,” 39-45.

The Daughters of St. Paul, *The Bible for Children*, St. Paul Editions, 1985  
Walter Wangerin Jr., *The Book of God for Children*, Zondervan Pub. House, 1997.

「모퉁이들 그림 성경 이야기」 모퉁이들, 1999.

「예쁜 이야기 성경」 모퉁이들, 1999.

「지혜 성경(잠언)」 아가페, 199

길버트 비어스, 테리사 와쉬, 「귀염둥이 성경」 아가페, 1994.

김소진 그림, 「크레파스 성경」 모퉁이들, 1999.

류은진 그림, 「아기 사랑 성경」 모퉁이들, 1989.

마이크 매독스, 「그래픽 바이블」 고진하 역, 문학동네, 1993.

맥 토마스, 두란노 Baby 그림 성경」 두란노, 1997.

유은진, 우지영 그림, 「리틀 구약/신약」 모퉁이들, 1999.

전영택, 이봉구, 최효섭, 유영희, 「어린이 성경」 기독교대한감리회 총리원  
교육국, 1962.

전혜령 그림, 「아름다운 성경」 모퉁이들, 1999.

정중화, 「명화로 엮은 이야기 성서」 동양출판사, 1968.

캐린 헨리, 페나스 데이비스 그림, 「두란노 어린이 그림 성경」 두란노, 1992.

팀 우드, 제니 우드, 「주머니 속에 꼬마 성경」 홍성사, 1998.

패트 알렉산더, 레온 백스터, 「꿈나무 성경」 생명의 말씀사, 1997.

#### <만화 성경>

David C. Cook, 「재미있는 만화성경」 생명의 말씀사, 1997

리비 워드, 짐 파케트, 「만화성서대전」 홍성사, 1994.

이 책의 형태는 어린이의 언어로 문학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며, ‘성경 이야기나 인물’을 중심으로 동화나 이야기 혹은 만화 중심으로 각색하여 편찬하였다. 이 책은 어린이들이 성경 이야기나 인물, 성경 전체의 구성을 쉽게 이해하고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을 안고 있다. ‘이야기 성경’의 필자는 그 자신의 신앙적 견해 안에서 어린이들의 신앙과 심리와 문학적인 성향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성경의 방대한 분량을 중요한 이야기와 인물을 요약적으로 정리하고 이해한다. 따라서 ‘이야기 성경’은 어린이들이 성경 전체의 흐름이나 중요한 사건 이야기 또는 인물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야기 성경”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첫째, ‘이야기 성경’

집필자의 신학과 문학적 소양에 따라서 그 초점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이야기 성경은 집필자의 안목으로 어린이 성경을 집필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성경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의미와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이야기’라는 장르가 번역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번역자의 이해와 문학적 상상력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영감성에 대한 왜곡이 있을 수 있다.

둘째, 독자들이 성경을 직접 읽는 과정을 통해서 만남과 신앙적 변화를 기대해야 한다. 그러나 ‘이야기 성경’은 이야기나 인물을 이해하는 차원에 머물 가능성이 많다. 특히 이야기 성경은 성경 본문에서 제시하는 말씀을 직접 읽음으로 깨닫는 통감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야기 성경’은 성경 이해의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성경이라고 할 수는 없다.

셋째, 이야기 성경은 어린이 중심으로 공부하거나 이야기를 들려 줄 수는 있지만, 공예배(公禮拜)에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야기 성경’은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읽거나 소수의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읽는 데 그치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 2.3. 어린이 발췌 성경

‘이야기 성경’이 지니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어린이들이 성경과 직접 만나도록 돕고 기독교 공동체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진일보한 것이 “발췌 성경”이라 할 수 있다. 발췌 성경은 어린이들의 심리와 삶의 상황에 맞추어 성경에서 일부를 발췌하여 순서대로 정렬한 것이다. 이 형태의 성경은, 이야기 성경이 안고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어린이들이 직접 성경 본문을 그대로 읽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 문학적·신학적·문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내용, 성경에서 중요한 내용 등을 발췌한 것이다.

발췌 성경으로 출간된 것은 다음과 같다.:

*The Children's Daily Devotional bible*

*The Good News Children's Bible*

Mary Batchelor, *The Children's Bible in 365 Stories*, Lion Publishing, 1985  
Kohlenberger III, John R. & Noel Wescombe, *Amazing Book*, International Bible Society, 1991.

그러나 발췌 성경을 개발하는 데에는 문제점이 있다.

첫째, 어떤 부분을 발췌하느냐 하는 점이다. 그래서 대한성서공회에서는 어린이 성경 번역을 위해서 ‘발췌 본문 연구’를 위촉하였다. 이 부분의 연구는 워낙 방대한 작업이기 때문에 연구를 맡은 임동원은 구약신학의 입장에서 창세기를 중심으로 발췌본문의 문제를 다루었다.<sup>12)</sup> 그의 연구에서 두 성경의 발췌 내용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The Good News Children’s Bible*과 *The Children’s Daily Devotional bible*에서 창조와 타락 이야기의 발췌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The Good News Children’s Bible	The Children’s Daily Devotional bible
<b>1)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이다.</b>	
<b>태초에</b>	
창조이야기(1:1-2:3)	창조이야기(1:1-16)
	짐승과 사람(1:24-2:4)
에덴 동산(2:8-9, 15-17)	
<b>인류가 범죄하다</b>	
첫번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다(3:1-13, 22-23)	첫 번째 죄(3:1-13, 20-24)
가인과 아벨(4:2-7)	가인과 아벨(4:1-11)
네 아우가 어찌 되었느냐?(4:8-14,16)	

위의 비교에서 볼 수 있듯이 성경 발췌와 구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전자에서는 창조 이야기를 창세기 1: 1-2: 3까지 모두 사용하였는데, 후자는 창조 이야기를 1: 1-16에서 끝내고, 짐승과 사람의 관계를 묘사하는 본문(1: 24-2: 4)을 따로 구별하고 있다. 그리고 후자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후자는 삭제하였다. 또한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전자는 ‘네 아우가 어찌 되었느냐?’라는 제목으로 구성하고 있음을 주목할 수 있다. 창세기의 앞 부분에서도 이러한 발췌와 편집의 차이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편집자의 신학과 의도가 숨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그들의 신학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기에 신학적 접근은 피하겠지만, 발췌 성경의 문제점은 어떤 신학적 입장에서 성경 본문을 발췌해야 하는가에 대한 거대한 신학적 작업이 요청되는 일이다.

둘째로 발췌 성경의 경우에는 발췌 본문의 신학적 조명과 어린이 신학이 정립되어야 한다. 즉 신학적으로 중요한 본문의 경우에 어린이들에게 도덕적인 문제가 있거나 치명적인 오해소지가 있는 본문(예, 하나님의 심판, 다윗의

12) 임동원, “어린이 성경 번역에 있어서 발췌 본문에 대한 연구,” 7-27

간음 사건 등)은 고려해야만 한다. 여기서 신학과 심리학의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많은 논의와 연구가 요청되어야 한다. 골드만(R. Goldman)은 어린이들의 종교심리학적 입장에서 성경의 범위를 소개하였다. 그는 그 범위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sup>13)</sup>

초기 아동기(Early Childhood, 5-7세)는 성경의 “생활 중심”인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죽음과 생명, 크리스마스나 추수감사절, 예배참여, 아동의 욕구, 즉 안전에 대한 욕구, 환상과 재미에 대한 욕구 등이다.

유년기(Middle Childhood, 7-11세) 초기는 가정, 친구, 애완동물, 우리를 돕는 사람, 목자와 양, 손, 다리, 옷, 조반 식사, 시간, 씨앗, 생일 파티 등 생활 내용으로 아동을 만나고 도와주는 새로운 것들, 그리고 주는 것과 받는 것, 양(양치기, 양의 하루, 선한 목자 등)을 다루는 성경이다. 그리고 후기는 가정과 관련된 내용(예수님의 가정, 유목민, 피난민, 롯의 가정 등), 방학, 노래, 음악, 시, 우유, 불, 선물, 빵, 4계절, 여행, 처음과 나중 등 감정적이고 육체적인 내용 등이다.

후기 아동기와 전청소년기(Late childhood and pre - adolescent, 11-13)는 성경에서 ‘생활 중심 주제’인 나 자신, 창조, 빛, 물, 소리, 공기, 법과 질서, 이름, 이야기 등이며, ‘종교적·성서 중심 주제’인 성경의 본질,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다루는 내용이어야 한다.

셋째, 발췌 본문의 문학적 장르의 문제가 있다. 임동원은 창세기의 경우에 산문과 운문의 명확한 구별과 번역이 성경의 의미를 살린다고 하였다. 성경에는 신학적인 설명, 법문, 역사, 서사시, 서정시, 드라마, 비유, 은유, 격언, 연가, 서간문, 그리고 묵시 등의 다양한 문학 유형을 발견할 수 있다.<sup>14)</sup> 따라서 성경의 문학형식(장르)의 고유성을 살리는 번역이 되어야 한다. 또한 강희천은 비유와 은유가 어린이들에게 이해하는 수준의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그는 S. P. 프랭클린(1928)의 연구를 소개하면서,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가장 쉬운 비유의 순서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탕자의 비유, 모래 위의 집과 반석 위의 집에 관한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과부의 동전에 관한 비유라 하였다.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씨뿌리는 자의 비유라 하였다. 또 G. W. 비히크(1974)의 유비(analogies) 연구에서 어린이들이 유비, 행위자, 작용 대상 순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sup>15)</sup> 이러한 연구는 발췌 성경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어린이들이 연령의 차이에서 성경을 다

13) 손삼권, “성경 읽기의 차원에서 어린이 성경 번역,” 105-107.

14) 임동원, “어린이 성경 번역에 있어서 발췌 본문에 대한 연구,” 13-18.

15) 강희천, “아동기의 종교 심리와 성서 이해,” 39-45.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성경만을 발췌한다는 본래의 의미가 상실되는 것이다. 즉 발췌 성경을 어린이의 성별, 나이에 따라서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 책을 편집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발췌 본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 성경 전체에 흐르는 신학을 중심으로 전체의 구조를 기획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신학적 과노라마로 구성할 수도 있다.

2) 큰 주제 아래에 연속적인 작은 단위로 연결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3) 위대한 영적 자원과 공동체 예배 혹은 개인 예배에 사용되어 온 내용도 포함된다.

4) 어린이의 입장에서 특별한 인간적 관심사(삶 중심)와 하나님과 만남의 사건을 다룬 본문을 중요하게 다룬다.

5) 성경의 독특한 주제와 목적을 잘 나타내주는 본문을 선택해야 한다.

6) 기독교 공동체에서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본문을 선택해야 한다.

7) 어린이들의 종교심리, 어휘, 경험, 문화 등에게 맞는 본문이어야 한다.

8) 어린이들이 다양하게 성경을 접할 수 있도록 문체와 장르를 통일성과 다양성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9) 예상 독자인 어린이를 8-9, 10-12세로 정하고,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연구해야 한다.

10) '불온한'(expurgated)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은 가능한 배제하도록 한다.

## 2.4. 어린이 성경전서

발췌 성경은 어린이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만을 제공자는 입장이다. 발췌 성경은 어린이들이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본문, 그리고 성경에서 중요한 본문을 제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을 전부 읽을 수는 없지만 성경의 중요한 부분을 다 이해하고 만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발췌 성경은 성경 전체를 다루지 못하므로 어린이들이 성경과 만남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기독교 공동체에서 완벽하게 활용하기는 힘들다. 더욱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인간의 이해의 차원을 떠나서 모든 사람

이 읽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 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성경전서를 어린이의 차원에서 번역한 책들이 발간되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The Children's Living Bible*, Tyndale House Pub. 1987.

John D. Clare, *The Bible Alive*, Zondervan Pub. ouse, 1993.

Walter Wangerin Jr., *The Bible for Children*, Checkerboard Press, 1986.

*International Children's Bible*, Sweet, 1986.

*Psalty's Kids Bible*, Nondervan Publishing House, 1991

Larry & Sue, *The Teen Study Bible*,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3.

*Read with Me Bible: An NIV Story Bible for Children*,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7.

*Contemporary English Version: Childrens's Illustrated Edition*, American Bible Society, 1995.

‘어린이 성경전서’(Childrens’s Bible)은 어린이의 성경 가독성(readability)에서 언어와 경험적 차원을 넘어서서 영적인 이해를 주장하는 것이다. 더욱이 일부 학자들은 어린이들의 읽기 교육에서 어린이의 언어적 차원만 주장한다는 것은 그들의 경험 세계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sup>16)</sup> 따라서 어린이들이 이해의 수준을 제한하지 말고, 성경 전체를 제공해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종교 교육의 차원에서 어린이들에게 성경 이해와 읽기를 통해서 구원과 교육이 일어날 수 있다.

더욱이 강희천은 비아넬로의 연구 결과를 보고하면서 “학습 환경적”과 “종교 교육적”<sup>17)</sup> 요인이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김희자의 조사에서 S교회 어린이들의 61%가 성경 읽기를 “좋아한다”고 반응하였다.<sup>18)</sup> 이것은 비록 어린이들이 성경 읽기와 이해의 제한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속한 기독교 공동체에서 신앙교육의 사회화로 인하여 종교심리와 언어 이해의 제한을 크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 성경을 개발하는 데 성경전서를 제공하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16) 손삼권, “성경 읽기의 차원에서 어린이 성경 번역,” 108-109; E. Sargent, *The Standard Fifth Reader of First Class Reader*(MA: J. L. Shorey, 1863).

17) 강희천, “아동기의 종교 심리와 성서 이해,” 35.

18) 김희자, “장기적인 학습을 위한 어린이 성경 번역의 선택성과 배제성,” 56.

우리는 위에서 어린이 성경의 세 가지 경향인 이야기 성경, 발췌 성경, 성경전서를 살펴보았다. 이야기 성경은 어린이들이 성경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직접 읽고 만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전통적으로 기독교공동체에서 낭독하고 학습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어린이 성경을 번역하는 데 두 가지 경향, 즉 어린이를 위한 발췌 성경과 성경전서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발췌 성경을 개발하는 일은 많은 연구와 노력이 전제된다. 그것은 어린이 성경개발을 위한 신학적 입장이 정립되어야 한다. 이 과제는 각 교단의 신학적 견해를 논의하고, 아동의 종교심리적 입장을 정리해야 하며, 그 후에 발췌 본문을 선정하는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 3. 어린이 성경 번역의 방향

#### 3.1. 번역의 중요성

김희자는 어린이들의 성경 읽기에 관한 조사를 하였다.<sup>19)</sup> 물론 이 조사는 한 교회를 중심으로 조사하였기에 타당도나 정확도를 신뢰할 수는 없지만, 재미있는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어린이들에게 ‘성경 읽기를 좋아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61%의 어린이들이 “좋아한다”고 응답하였다. ‘왜 성경 읽기를 좋아하는가?’라는 질문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56%), “성경이 재미있어서”(33%)가 높은 비율로 나왔다. 이 응답자들이 다니는 교회의 성향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소속의 S교회라는 교회성향을 엿볼 수 있다. 이 응답은 조사대상자의 교회 성향에 의존되는 제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어린이들이 출석하는 교회와 성향에 따라서 어린이들의 성경 읽기는 높아질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 조사에서 특이한 점은 어린이들이 ‘성경이 예뻐서’ 읽고 싶다(1%)거나, 부모(9%)나 교역자(1%)의 권유에 의해서 읽는다는 반응이 저조했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성경을 읽는 것은 출석 교회의 성향과 공동체적인 특성에 좌우된다는 것을 가림할 수 있다.

반면에 어린이들이 ‘성경 읽기를 싫어하는 이유’를 보면, 내용면에서 많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즉 ‘읽기가 어려워서’(27%), ‘무슨 뜻인지 몰라서’(22%),

19) *Ibid.* 56-65.

그리고 ‘재미가 없어서’(25%)가 나오고 있다. 즉 74%나 되는 어린이들이 성경 내용이 어렵고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 읽기가 싫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성경의 편집과 구성의 문제는 의외로 낮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림이 없어서’(8%), ‘예쁘지 않아서’(0%)로 나타나고 있다.

또 어린이들이 성경을 ‘혼자서 공부할 수 없는 이유’는 72%의 어린이들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라고 대답하였다. 물론 어른들도 성경을 혼자서 읽거나 공부하기가 힘들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니 어린이들이나 중등학생들이 성경을 독학한다는 것은 가히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김희자의 조사와 강희천의 연구 자료에서 보고한 비아넬로의 “종교 교육의 기간”과 보스의 “교회의 소속의식”<sup>20)</sup>에 의해서 성경이해와 읽기가 좌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읽기는 사회적 과정<sup>21)</sup>으로 어린이들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소속되고, 함께 경험을 나누면서 성경 읽기와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들의 성경 읽기는 ‘성경의 정보 획득, 성경 언어와 친근성, 기독교 신앙의 체험, 그리고 기독교의 이야기를 통해서 비전을’ 갖게 된다.

J. R. 예츠와 K. W. 린튼(1984)은 성서 번역상의 차이가 그 사용자의 이해에 과연 어느 정도 영향 연구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sup>22)</sup>: (1) 보수 혹은 진보신학의 차이는 성서 이해에 큰 차이를 유발하지 않았다. (2) 현대판(modern versions) 번역들이 King James Version보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 (3) Revised Standard Version이나 King James Version의 구절보다는 Living Bible과 Today’s English Version의 구절이 더욱 쉽게 이해되었다. (4) 이야기 문학(narrative literature)이 성서번역상의 차이가 의미 차이가 별로 없었다. (5) 성문서의 이해에 있어서는 Living Bible이 King James Version 또는 New English Bible보다 더욱 용이했다. 또 예츠(Yeatts, 1988년)는 King James Version이 다른 성서 번역서보다 쉽게 기억되거나 암송효과가 약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어린이에게 필요하고 맞는 번역이 성경 읽기와 이해에

20) 올바른 읽기를 위해서는 물리적 자원과 사회적 중재가 풍부해야 한다(G. L. Bissex, *GYNS AT WRK: A Child Learns to Read and Writ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0); D. Doake, *Preschool Book Handling Knowledge or Book Experience and Emergent Reading Behavior*,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Atlanta, GA, 1979); D. Durkin, *Children who Read Early*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Columbia University, 1966); R. G. Bose, “Religious concepts of children,” *Religious Education*, 2A(1929), 831-837; 강희천, “아동기의 종교 심리와 성서 이해,” 35.

21) Miles V. Zintz & Zelda R. Maggart, *Corrective Reading*(IA: Wm. C. Brown Publishers, 1986), 7.

22) 강희천, “아동기의 종교 심리와 성서 이해,” 49.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어린이 성경 번역에서 크게 고려해야 할 점은 교회 안에서 성경을 자주 접하고 읽을 수 있는 예배나 성경공부 혹은 신앙교육을 통하여 활용하면서 어린이들이 성경 읽기와 이해를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어린이 성경은 「교회 공동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성경」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3.2. 번역의 방향

뉴먼(B. M. Newman)은 어린이의 성경 번역의 원칙을 정확성, 명확성, 수용성, 선택성, 감수성, 경제성, 이미지성이라고 정의하였다.<sup>23)</sup> 여기서 우리는 어린이 성경 번역의 구체적인 사항을 종교심리적 입장, 문학적 방향, 그리고 편집과 구성의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 3.2.1. 종교심리학적 입장

어린이 성경 번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아동에 관한 정확한 이해이다. 물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죄인이라고 규정해온 신학적 인간관에만 의존할 경우, 아동기의 삶과 심리적 이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죄인됨에 대한 신학적 명제가 중요하지만, 어린이를 성인과 구별할 때에는 어린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요청된다. 따라서 어린이의 더불어, 성장(growth) 혹은 발달(development)이라는 관점에서 아동을 이해해야만 그들을 위한 성경을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에 관한 연구는 종교심리학적 차원에서 어린이들의 종교적 사고와 인지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19세기말부터 아동의 종교적 인지활동에 관한 연구는 종교 교육의 방향을 규명하였다.<sup>24)</sup> 이 연구에 의하면 연령

23) Barclay M. Newman, "Some Features of Good Translation for Children," *Bible Translator* 38(Oct. 1987), 411-418.

24) Ronald Goldman의 "종교적 사고"는 *Religious Thinking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64).; James W. Fowler의 "신앙발달 단계이론"은 *Stages of Faith: The Psychology of Human Development and the Quest for meaning*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1).; James W. Fowler, *Faithful Change: The Personal and Public Challenges of Postmodern Life* (Nashville: Abingdon Press, 1996).; Fritz Oser의 "종교적 판단 단계설"은 *Religious Judgment: A Developmental Approach* (Birmingham, Ala. : Religious Education, 1991).; 아동기의 종교적 개념(religious concepts) 형성 과정을 조사한 R. Vianello의 연구는 "Belief in a kind of Justice Immanent in Things: A Revision of the Piagetian Hypothesi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No. 46 (1989); K. Tamminen의 *Existential*

과 성별, 그리고 교회와 가정이라는 외재적 경험과 환경, 그리고 내재적 경험과 환경에 의해서 종교적 사고와 인지도가 다르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어린이를 위한 성경교육은 그들의 일상적 경험과 더불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들의 이론에 의하면, 어린이들을 위한 신앙교육의 범위는 규정될 수 있다. 심지어 골드만은 성경교육을 ‘생활중심’과 ‘성서중심’으로 구별하고 어린이들의 종교적 인지도에 따라서 성경을 차별적으로 제공해야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sup>25)</sup>

강희천은 어린이 성경 번역과 편집에서 아동의 “사회환경적 차이”<sup>26)</sup>를 고려하는 차원에서 시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동기의 종교적 개념을 성인기와의 상대적 비교라는 관점에서 “연령의 차이를 축으로 삼는 선형적/구조적 요인”을 은연중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비판하는 차원에서 아동을 위한 성서 번역과 편집이 새롭게 요청된다는 점이다. 아동기의 종교적 개념의 변화가 주로 연령의 증가에 따라 생겨나지만, 그것은 사회환경적 차이(이를테면 거주지역, 문화, 종교, 교육의 차이)에 의해 유발될 수 있다. 바로 이점에 있어 한국 아동을 위한 성서 번역과 편집은 특정의 계층, 문화, 거주지역, 성별 및 교육형태를 우선 시하는 관습적 편견으로부터 벗어나 모든 계층, 문화, 거주지역, 성별 등을 동일하게 중시하는 맥락에서 수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린이 성경을 종교심리적인 규정대로 성경을 번역한다면, 어린이 성경의 범위는 극히 제한된다. “아동의 신앙성숙과 영적 성장”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없다. 강희천은 어린이 성경 번역과 편집에서 “성서적 지식이나 사건을 단순히 소개하고 설명하는 형태의 성서 편집보다는, 기독교의 중심사상을 아동 자신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과 직접 연결”<sup>27)</sup>시켜야 한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특히 발췌성경의 경우에는 ‘비유, 은유, 신화’를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선정해야 한다. 이 점에서 아동들의 인지적 활동과 정서적 활동의 효과적인 연계가 필요하며, 가능한 총체적 차원의 ‘신앙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어린이성경 번역에서 강희천 교수가 소개한 아동의 종교심리적 측면을 고려해야 하지만, 단순히 인지적 차원의 종교적 지식이나 개념 형성에 초점을 맞출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어린이 성경을 개발하는 데 종교심리학적 차원에서 다음

*Questions in Early Youth and Adolescence, Research Reports on Religious Education C5/1988*  
Institute of Practical Theology, University of Helsinki: Religious Development in Childhood and Youth (Helsinki: Finnish Academy of Science, 1991).

25) 손삼권, “성경 읽기의 차원에서 어린이 성경 번역,” 105-106.

26) 강희천, “아동기의 종교 심리와 성서 이해,” 51.

27) *Ibid.*, 50.

사항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어린이 성경을 개발하는 데 어린이들의 삶에서 지정의(知情意)의 총체적 차원에서 추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어린이의 종교심리학적인 차원에서 어린이들이 기독교적인 용어, 개념, 비유와 은유 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어린이들이 성경을 읽는 데 제한시키는 범위가 있다는 것을 말하며, 발췌 성경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들이 종교심리학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배제해서도 안된다. 따라서 어린이를 위해서 '발췌 성경'과 '성경전서'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어린이 성경 번역자들은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심리와 삶을 고려하여야 한다. 종교심리학 연구는 대체로 서구의 조사와 분석에 근거한 것이므로 우리나라 어린이의 삶과 심리의 입장에서 조사분석이 요구된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 유사한 연구작업이 없으므로, 성경 번역시에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심리적 입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어린이 성경 번역자들은 독자를 고려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의 각 단계에 맞는 성경을 번역이 필요 하지만, 그 단계에 맞는 성경을 개발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과 시간과 인력이 소요된다. 따라서 어느 한 부분을 독자로 정하는 데에는 논란이 많다. 주로 글을 읽을 수 있는 나이인 8-12세(초등학교 1-6학년)으로 하자는 의견이 일반적이다. 혹은 중등학교 3학년까지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이견도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1-2학년과 중등학생의 종교심리적 성격이 현저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3-5학년(10-12세)를 중심으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섯째, 어린이 성경 번역자들은 어린이들의 사회환경적 차이 즉, 거주지역, 문화, 종교, 교육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특정의 계층, 문화, 거주지역, 성별 및 교육형태의 차별화에서 모든 계층, 문화, 거주지역, 성별 등을 동일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

### 3.2.2. 문학적 접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다양한 문학적 장르를 안고있는 인간의 언어이기도 하다. 특히 어린이들은 성경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어린이 성경 번역에서 문학적인 접근은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여기서

어린이 성경의 문학적인 방향을 고찰하기로 한다.

### 1) 어린이 성경의 문학적 방향

아동의 종교적 언어의 몰이해는 가독성(readability)을 약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글읽기에서 익숙한 단어를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편이다.<sup>28)</sup> 따라서 아동들은 기초 어휘를 충분히 이해하고 나서, 제시된 단어의 의미를 자동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 성경은 어른들의 종교적 사고에 근거한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가능한 아이들의 언어와 종교적 사고 수준에 맞게 쓰도록 힘써야 한다. 강희천의 연구보고에서도 특히 종교적인 언어 이해와 출석률은 학습효과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지만, “교회의 소속의식”<sup>29)</sup>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어린이들이 기독교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면, 종교적 언어라 할지라도 성경을 가독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특히 성경의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책이라 할지라도 읽히게 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일부 학자에 의하면, 어린이의 언어적 차원만 고려한다면, 그들의 경험을 제한시키는 것이 된다.

그렇다고 어린이 성경을 성인의 언어로 읽히는 것보다는, 어린이들의 언어적 종교적 인지 차원과 언어 차원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과제라 생각한다. 따라서 어린이 성경 번역은 본래의 의미를 잃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면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여기서 어린이들이 성경 읽기와 이해를 위한 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2) 문체의 기본적 방향

어린이 성경을 개발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린이 성경의 본문을 우리말과 문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점이다. 기성세대들이 사용하는 언어 문체를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날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입말을 사용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따라서 어린이 성경 번역에서 문체를 논의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번역할 대상을 정확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즉 어린이 성경을 읽을 대상을

28) S. Willard, *The General Class Book*(MA: A. Phelps and A. Clark, 1828), iv.

29) 강희천, “아동기의 종교 심리와 성서 이해,” 30-31, 47.

정하고, 그에 따라 그들이 사용하는 문장 체계와 어휘 사용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성서공회가 어린이 성경을 연령 체계별로 번역한다고 하더라도 교회에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번역 대상을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3-5학년(10-12세)을 중심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어린이 성경의 종결형과 연결형과 어법, 화법, 존비, 대우체계 등에 대한 정리되어야 한다. 이것은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한 분야라 생각한다. 성우들의 입장, 국문학적 입장, 어린이들의 세계에서 사용하는 실제 언어 녹취 등을 통해서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3-5학년 교과서의 문체를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실제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가 그들에게 이미 친숙하기 때문이다.

### 3) 양식(style)

어린이 성경은 그들이 이해하기 쉽고 단순하며 이해할 수 있는 문체와 언어를 사용<sup>30)</sup>하면서도 동시에 유치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가능하면 짧고 단순한 문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음에서 언급하는 문체의 양식을 고려할 수 있다.

-단조로운 문장은 흥미를 잃게 한다. 어린이들에게 활력을 줄 수 있는 양식으로 번역되어야 한다. 따라서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시키도록 도입해야 한다. 강력한 도입, 풍부한 언어, 다양한 문체, 흥미 있는 그림 및 삽화 등이 요청된다.

-장르는 가능하면 히브리 본문에 부합되는 장르로 번역되어야 한다. 문장의 장르는 대화문, 설명문, 기도문, 인용구 처리, 연설문, 서신, 이야기(혹은 소설), 설명문, 전기 혹은 자서전, 시, 비유, 산문 등의 구별이 필요하다.

-어린이들에게 ‘친근성’으로 구어체에 익숙한 문장 패턴을 들 수 있다.

-예수님의 어록 중에서 “~해라” 혹은 “~하시오” 사용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존칭은 오늘날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를 참조하는 것이 좋다.

-아이들이 문장을 쉽게 읽도록 ‘반복성’을 취한다. 명사/대명사, 동사구/명

30) S. Town, & N. M. Holbrook, *The Progressive Fifth or Elocutionary Reader*(MA: O. Elocutionary, 1856): 오래 전부터 타운은 어린이 교재를 오래 연구하면서 그들의 이해 수준을 넘지 않으면서 의미 있고 감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교재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였다.; G. S. Hillard, *Second Class Reader*(MA: Hickling, Swan & Brown, 1867).

사구, 전체 사고/ 부분 사고, 구체적/일반적/구체적, 직접적 진술/암시, 능동/수동, 비은유적/은유적 표현 등의 다양한 반복을 통해서 어린이들의 문장 이해를 돕는다.

-문장의 '관계성'을 통해서 전체와 부분, 원인과 결과의 관계, 비유와 대조의 관계 등을 알도록 돕는다.

-비교적 단순한 문법과 구문으로 된 문장으로 10-12 단어를 넘지 않을 것이 좋다.

-문단의 수와 분리, 단락 바꾸기, 페이지의 단어 수, 페이지의 문장 수 등을 잘 고려해야만 한다. 이러한 구별은 어린이들이 성경의 다양한 형태를 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부정적이거나 수동적인 표현은 매우 신중하게 다룬다.

-수식어는 하나만 사용한다.

-가능한 한 적은 음절로 된 단어를 사용한다.

-직접적이고 생생한 문체를 사용한다.

-어린이 성경의 가독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본문을 큰 소리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호흡, 리듬, 소리, 강약의 문제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 4) 단어 사용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글은 단어의 길이가 짧은 것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글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단어 수, 음절 수, 긴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긴 단어일 경우에는 친숙한 단어(어린이들이나 교회 공동체에서 자주 사용 것)는 좋다.

-독특한 관용어는 반드시 피하고, 빈도수가 적은 어휘도 마찬가지로 피한다.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단어'를 사용한다. 추상적인 단어는 적게, 어려운 단어는 설명을 해주고, 관념은 논리적 순서에 따라 전개하여야 한다.

-추상적 단어, 새로운 관념, 오래된 관념은 덜 사용한다. 그리고 새로운 대상, 사건, 개념들을 조금씩 사용한다. 이러한 개념을 다룰 때는 반복 사용하는 문제에 신중해야 한다.

-종교적 용어, 전문적인 용어, 문화적 언어 등을 번역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과 같은 단어는 신학적 의미에 견해차가 있을 수 있지만, 어린이들에게 혼돈을 줄 수 있으므로 통일을

할 필요가 있다.

-문화적 요소: 현재의 문화와 성경의 문화에 동시에 존재하는 사건, 대상 등이 의미가 서로 다를 때 현대적 의미로 통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도량형(세겔, 규빗 등)의 현대적 환산, 지리적 용어(게네사렛 호수 등)의 통일, 국가명(애굽 등)의 현대적 표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일상 용어이지만, 성경과 문화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들(예, 부르심)을 잘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어린이들이 전체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관심을 놓칠 수 있는 용어(예, 할례, 창녀)는 굳이 그 용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 3.3. 편집과 구성의 차원

어린이 성경은 그들의 성경 읽기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편집·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성경을 잘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 3.3.1. 자료 제공

-성경 사용 방법을 자세하게 소개한다.

-어린이들이 성경 언어를 선이해할 수 있도록 각 책의 개요와 목적 등을 진술해 주는 것이 좋다.

-어린이의 성경 읽기를 도와주는 해설집 혹은 사전을 제공한다. 해설 및 사전은 특수단어(종교적·사회적·문화적 용어, 동식물 등), 지명, 인명, 관습 등을 다룬다. 사전은 문자 과 의미 획득을 촉진해 준다.

#### 3.3.2. 삽화와 그림 자료

-어린이 성경은 언어뿐만 아니라 “그림”과 같은 비언어적 상징으로 구성되는 것이 좋다. 즉 어린이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와 삽화, 그림, 사진 등의 자료를 제공한다.

-상징적 자료를 활용할 때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즉 “범문화적 접근”이 되어야 한다. 특별 계층이나 인종, 혹은 특수 문화나 사회를 다루지 말아야 한다.

-어린이 성경은 오늘날 아동들의 “신앙적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그들의 신앙 성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각에서 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가능한 경우 한국인의 모습이 “아동을 위한 성서”의 그림에 포함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3.3.3. 책의 구성

마지막으로, 성경 내용의 번역뿐 아니라 어린이 성경의 구성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한다. 이것은 말씀을 담는 그릇이지만 어린이들이 성경을 자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어린이 성경의 판형과 활자는 크며, 여백이 많은 것이 좋다.
- 편집기법 활용, 여백, 삽화, 색상 등을 활용한다.
- 성경의 글자가 또렷하고 질 좋은 종으로 인쇄되어야 한다.
- 제본과 편집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멀티미디어와 정보화 시대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예술적으로 고감도의 디자인과 제본이 요청된다.
- 성경전서의 경우 전체 분량의 부피와 무게를 고려하여야 하고, 필요하다면 여러 권으로 분리할 수 있다.

## 4. 결어: 남은 이야기

어린이 성경을 개발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만인이 읽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이들도 읽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일은 우리의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 작업을 위해서 대한성서공회는 어린이의 언어세계라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위에서 논의하지 못한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번역자의 첫 번째 관심은 번역의 정확성과 성서 기자의 생각에 충실해야만 한다. 따라서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본문에 나오는 어휘와 문법적 사항의 중요성에 무게를 두고, 어린이의 언어와 삶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성경 번역은 번역의 원칙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만 있을 수 없다.<sup>31)</sup> 따라서 어린이 성경 번역을 위해서 종교심리학, 문학, 신학, 가독성을 위한 방향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번역상에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나 반대되는 영역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어린이 발췌 성경 번역을 위해서 어린이 성경의 범위를 규정하여야 한다. 이 작업은 먼저 어린이 신학이 정립되어야 하고, 기독교 교육과 성서신학자들의 협의하에 작업되어야 할 것이다.

31) 나채운, 「우리말 성경연구」(기독교문사, 1990), 472-477.

넷째, 어린이 성경 번역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팀 프로젝트가 되어야 할 것이다. 즉 신학자, 기독교 교육학자, 언어학자, 어린이 심리학자, 아동 미술가, 사회학자, 고고학자, 성경 복식 연구자, 컴퓨터공학자, 교육공학자, 교회와 학교의 교사, 어린이 등이 동참하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내다보고, 남북한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성경을 연구하여야 한다. 이 과제를 위해서 남한과 북한 아이들의 사회학적 이해가 요청된다.

여섯째, 미래 세대(post N-generation)을 위해서 문자 성경과 함께 듣고 보는 영상 성경, 만화 성경, 비디오 성경, 성경공부를 위한 어린이 CD 성경, 나아가 사이버와 매체 활용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체험하는 시뮬레이션 성경 등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